



비친족 가구 그들은 누구인가?*

초록

- ▶ 한국 사회에서 가족 및 가구 형태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비친족 가구는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가구 형태 중 하나임. 5인 이하 남남으로 구성된 비친족 가구는 혈연이나 법적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동일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음.
- ▶ 연구 결과, 비친족 가구의 구성 사유나 가구원 관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음.
 - 비친족 가구는 2인 가구 비중이 높고 2인 가구 중에서는 남+여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비친족 가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부양과 돌봄을 하고 있는 가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함. 남+여 2인 가구는 배우자 관계와 거의 유사한 관계로 생활하는 경우 다수 있었음.
- ▶ 혼인·혈연에 의한 가족관계에 대해서만 법률상 권리가 보장되며 비친족 가구는 법적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비친족 가구에 대하여 법률상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비친족 가구 특성 요약



주: 2015년 이후는 행정자료 기반 등록센서스 자료임.

자료: 통계청(2000,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2020, 2022). 「인구총조사」

* 이 이슈페이퍼는 202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정리해 제작되었습니다.

출처: 김영란·주재선·김소영·양준영·김주현 (2024). 비친족 가구 현황과 정책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비친족 가구 연구 배경 및 목적

- ▶ 비친족 가구는 일반 가구 중에서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임. 비친족 가구는 규모는 작지만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2년 비친족 가구는 일반 가구 중 2.4%이며 비친족 가구에 속하는 인구는 1,098,224명임(통계청, 2022). 2021년 대비 증감률은 친족 가구는 0.4% 감소하고, 1인 가구는 4.7% 증가, 비친족 가구는 8.7% 증가함(통계청,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 보도자료, 2022년 7월 29일 자).
 - 비친족가구는 가구원 수 2인 가구 78.9%, 3인 이상 가구 21.1%임. <표1>에서 2인 가구의 성별 구성은 남+여 가구 45.1%, 남+남 가구 34.8%, 여+여 가구 20.0%임(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원자료 분석).
 - 연령대별 비중 변화를 보면 30대 이하는 2010년 72.9%에서 2020년 63.0%로 감소하고 40대 이상은 2010년 27.2%에서 37.0%로 증가함(통계청, 2010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분석). 비친족 가구는 30대 이하 젊은 연령대 비중이 높지만 최근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임(<표 2> 참조).

<표1> 비친족 2인 가구의 성별 구성별 가구 비중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비율
남+남 가구	72,514	34.8
여+여 가구	41,735	20.0
남+여 가구	94,032	45.1
전체	208,281	100.0

주. 가구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표2> 비친족 가구 전체 가구원의 연령대별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0년	7.1	43.9	21.9	11.5	8.4	4.2	3.1
2015년	5.0	39.2	21.8	13.9	12.4	5.0	2.8
2020년	3.0	36.5	23.5	13.1	12.5	7.9	3.5

자료: 통계청(2010, 2015,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분석

- ▶ 현재 비친족 가구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가 유일함. 그러나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파악 가능하며,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나 구성 사유를 비롯하여 공동생활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음.
-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이 단순한 주거 공유만 하는 가구인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상호 정서적 친밀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구원 간에 상호 돌봄이나 경제적 부양을 하는지, 가족과 유사한지 등 공동생활 실태에 대하여 전혀 연구된 바가 없음.
 - 또한, 현재 비친족 가주로 생활하는 가구원들이 개인 생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가구 형태인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구 형태인지 등 한국 가족 변동에서 중요하게 파악해야 할 가족 형성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없음.
- ▶ 한국 가족 구성의 다양성 관련, 최근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비친족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일반적 특성 및 가구원 구성 사유, 돌봄과 부양, 공동생활 실태 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살펴봄.

2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본 비친족 가구 현황

●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 현황을 친족 가구 및 1인 가구와 비교한 결과

- ▶ 평균 연령은 비친족 가구 36.6세, 친족 가구 41.5세, 1인 가구 48.9세로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았음.
- ▶ 혼인상태는 미혼이 70.3%로 압도적으로 높고 배우자 있음 19.6%, 이혼 7.7%, 사별 2.5%임. 친족 가구와 1인 가구를 비교하면 미혼 비중 차이가 가장 큰데, 친족 가구의 경우 미혼은 25.6%이며, 1인 가구는 50.7%임.

●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 수별 가구원 특성

- ▶ 2인 가구 78.9%, 3인 이상 가구 21.1%로 2인 가구 비중이 높았음.
- ▶ 가구원의 평균 연령은 2인 가구 37.8세, 3인 이상 가구 34.6세이며, 연령대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는 3인 이상 가구에서 더 많고 40대 이상은 2인 가구에서 더 많아서 3인 이상 가구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가구원이 더 많았음
- ▶ 혼인상태는 2인 가구는 미혼 72.3%, 배우자 있음 14.5%, 이혼 10.1%, 사별 3.1%이며, 3인 이상 가구는 미혼 66.8%, 배우자 있음 28.7%, 이혼 3.2%, 사별 1.3%임. 2인 가구가 3인 이상 가구와 비교하여 미혼과 이혼의 비중이 약간 더 높고, 배우자 있음은 3인 이상가구에서 더 높았음.

● 비친족 2인 가구의 성별 구성별 가구원 특성

- ▶ 비친족 2인 가구의 성별 구성에 따른 가구 비중은 남+여 가구 45.1%, 남+남 가구 34.8%, 여+여 가구 20.0% 순으로 나타남.
- ▶ 가구원의 평균 연령은 남+여 가구 40.2세, 남+남 가구 36.2세, 여+여 가구 35.1세로 남+여 가구에서 가구원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음.
- ▶ 가구원의 혼인상태는 남+남 가구, 여+여 가구, 남+여 가구 모두 미혼 비중이 가장 높았음. 미혼 비중이 가장 높은 경우는 여+여 가구로 82.0%이며, 남+여 가구 71.0%, 남+남 가구로 69.1%임. 배우자 있음은 남+남 가구에서 24.2%이며, 남+여 가구 9.0%, 여+여 가구 7.2%임.

● 거쳐 종류와 주거 점유 형태, 거주 기간 등 주거 특성

- ▶ 거쳐 종류는 단독주택 비중이 39.0%로 가장 높고, 다음은 아파트(27.7%), 주택 이외의 거쳐(17.2%) 순임. 친족 가구보다 아파트 비중은 낮고 주택 이외 거쳐 비중은 높았음.
- ▶ 주거 점유 형태는 비친족 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 38.9%, 무상(관사, 사택)(22.4%), 자기집(17.9%) 순으로 친족 가구 및 1인 가구 보다 자기집 비중은 낮고 무상(관사, 사택) 비중은 높았음.
- ▶ 비친족 가구는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32.8%로 가장 비중이 높았음. 3년 미만 비율을 보면 비친족 가구는 67.9%로 1인 가구(52.7%)와 친족 가구(30.8%)에 비해 높아, 비친족 가구는 해당 거쳐 거주 기간이 친족 가구나 1인 가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았음.

3 비친족 가구 공동생활 실태

▶ 비친족 가구 가구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동생활 실태를 파악함.

- (조사 대상자) 2인 이상 남남으로 구성된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
- (표집 방법) 유의 표집 방법 활용, 전문조사기관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였고 일부 오프라인 면접조사를 병행함.
- (주요 조사 내용) 가구원 일반 현황, 가구 형성, 공동생활 실태, 정책지원 수요 등
- (조사 기간) 2024년 5월 8일 ~ 5월 31일
- (분석 사례) 335명

▶ 공동생활 기간 및 구성 사유

- 공동생활 기간은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짧고, 연령이 많을수록 기간 평균이 길었음.
- 2인 가구가 3인 이상 가구보다 짧았음. 2인 가구 중에서는 여+여 가구가 가장 짧고 남+여 가구가 가장 길었음.

▶ 공동생활 사유는 주거비 절감 사유 비중이 가장 높았음.

- 20대 이하 연령은 주거비 절감 사유가 61.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음. '생활비 절감을 위해'는 50대 이상에서 43.1%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3인 이상 가구는 주거비 절감 57.1%, 생활비 절감 42.9%, 동일 비용 넓은 주거면적 25.3%로 비용 절감 사유가 높은 경향을 보임. 2인 가구 중 남+여 가구는 애정 관계 사유가 72.8%, 주거비 절감 38.2% 순이었음. 남+남 가구는 주거비 절감(72.0%), 생활비 절감 44.0% 순이며, 여+여 가구는 주거비 절감(65.5%), 서로 친해서(32.8%) 순으로 나타남.

▶ 공동생활 전후 가구원 관계

- 공동생활 이전 관계는 알고 있었던 경우가 78.2%이며, 몰랐음' 비율은 3인 이상 가구 23.1%, 2인 가구 9.0%로 3인 이상 가구에서 높았음.
- 현재 가구원 관계에 대한 인식은 남+여 2인 가구는 애정 기반 배우자 사이로 생각하는 비율이 77.9%로 가장 많고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사이 17.6%임. 그 외 비친족 가구는 주거공동체이면서 남남은 아닌 사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

▶ 공동생활 종료 시 예상 사유

- 3인 이상 가구는 '1인 가구로 독립'(19.8%)과 '졸업 또는 직장 이동'(18.7%) 비중이 높았음. 2인 가구 중 남+여 2인 가구는 애정 관계 종료 사유 비중이 높고 다른 가구는 1인 가구로 독립, 졸업이나 직장 이동, 결혼 등의 사유가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공동생활 비용과 가사노동, 생활 규칙 등 공동생활 운영

- 공동생활 이전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여부를 보면 주택 비용, 주거 관리비, 생활비 관련 분담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한 비율이 높고 가사노동이나 식사 관련, 공동생활 규칙에 대한 사전 협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가구원 관계의 의미: 상호 의지와 역할 기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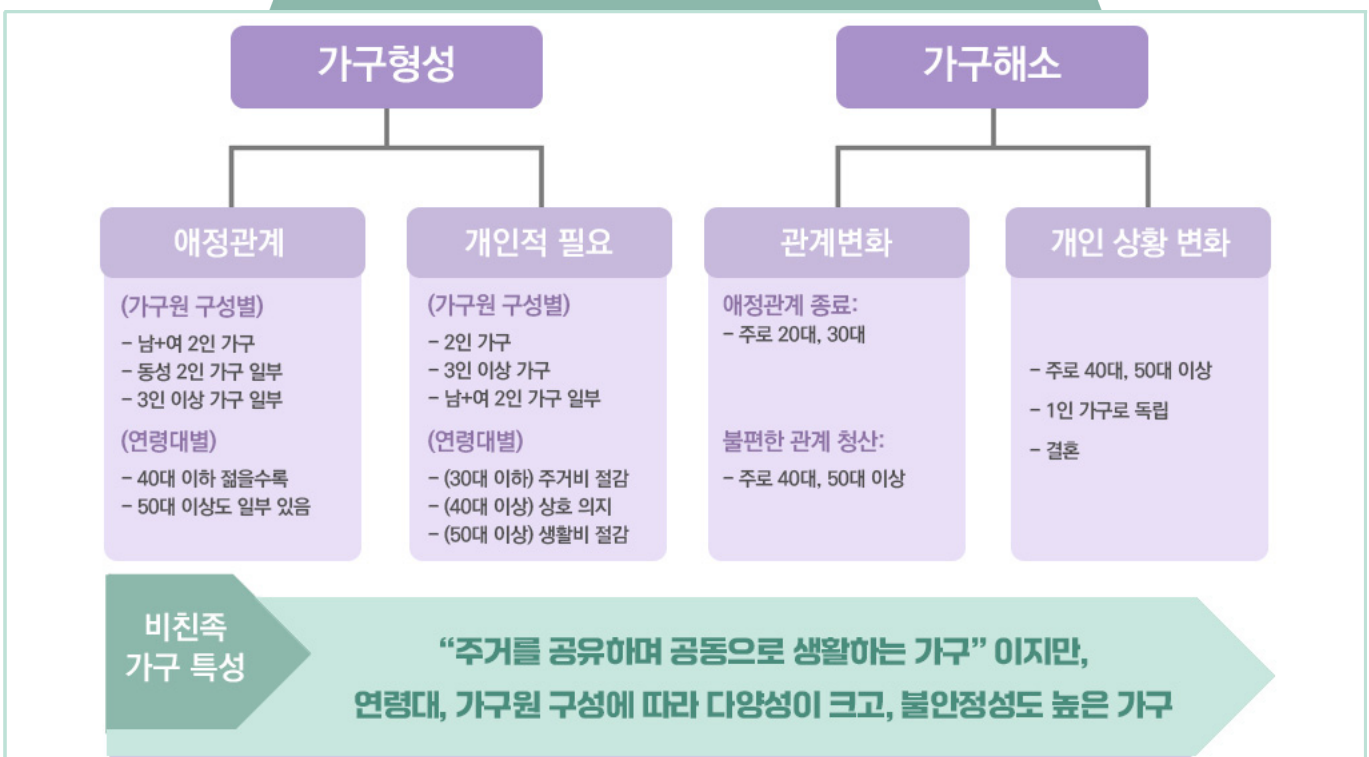
- 남+여 2인 가구, 여+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는 '범죄 등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하여 의지함 비율이 가장 높고, 남+남 2인 가구는 '아프거나 건강상 문제'에 대하여 의지함 비율이 86.0%로 가장 높았음. '연애나 결혼 문제(82.0%)'와 '경제적 문제(75.5%)' 관련 의지함 응답 비율은 다른 가구보다 남+여 2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 함께 사는 가구원에 대한 법적 보호자 역할 기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60.3%가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여 2인 가구의 79.4%, 여+여 2인 가구 65.5%가 가구원에 대하여 법적 보호자 역할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함. 반면 남+남 2인 가구(64.0%)와 3인 이상 가구(58.2%)는 기대 안 함 비율이 더 높았음.

4 비친족 가구의 특성 및 한국 가족 변화 관련 시사점

● 비친족 가구의 특성

- ▶ 비친족 가구의 특성을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주거를 공유하며 살고 있는” 가구이며, 가구원은 “함께 거주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음.
- ▶ 비친족 가구 형성 관련, 애정에 기반하여 주거를 공유하는 사이와 필요에 의해 주거를 공유하는 사이로 구분됨.
 - 애정에 기반한 관계로 주거를 공유하는 사이는 다수의 남+여 2인 가구와 여+여 및 남+남과 같이 동성이 같이 사는 가구 일부, 3인 이상 가구 일부가 해당됨. 상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를 공유하는 사이는 대부분의 여+여 및 남+남 동성과 같이 사는 가구, 남+여 가구 중 일부, 3인 이상 가구임.
- ▶ 가구 해소 관련, 비친족 가구는 애정 관계가 끝나거나 사이가 불편해지는 것과 같이 관계가 변화되거나 개인의 직업, 결혼, 독립과 같은 상황 변화로 언제든지 쉽게 가구가 해소될 수 있음.
 - 비친족 가구는 애정 기반 사이나 필요에 의해 주거를 공유하는 사이 모두 관계의 변화나 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쉽게 끝낼 수 있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가구임.
- ▶ 이들 가구는 가족과 달리 공동생활에 대한 표준화된 방식이나 전형성이 없으며, 가구원 간 경제적 부양이나 비용 부담, 식사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족과 유사한 고정관념이 작동하지 않음.
 - 예를 들어서 함께 살고는 있지만 식사를 의무적으로 같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고 동등하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가구 구성원은 상황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생활 규칙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음.
 - 하지만 남+여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가구와 비교하여 전통적인 성역할을 따르는 경향을 보임. 공동생활에 대한 협의를 한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며, 가사노동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음.

비친족 가구 특성 요약



○ 한국 가족 변화 관련 시사점

- ▶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친밀도가 높아져 단순 하우스메이트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가구원 간에 서로 돌보고 의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문제에 도움을 받고 있고, 일정 부분 보호자 역할도 기대하는 등 완전한 타인보다는 가까운 관계로 서로 도우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남+여 2인 가구는 대체로 다른 가구와 특성이 달랐음.
 - 구성 사유나 종료 예상 사유가 애정 관계 비중이 높고 공동생활 기간도 다른 2인 가구보다 길었음. 또한 서로를 배우자와 같은 사이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아서 남+여 2인 가구는 남남이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관계에 더 가까운 가구라고 할 수 있음.
- ▶ 남+여 2인 가구 이외 남+남 또는 여+여 2인 가구나 3인 이상 가구에서 모두 가구원 관계를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사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으며, 남남과 가족의 중간 정도로 서로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음. 최근 생애 미혼율의 증가나 이혼의 증가 추세를 볼 때 가족이 아닌 새로운 친밀성 기반의 공동생활 가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 ▶ 비친족 가구는 가구원 수나 성별 구성에 따라서, 또한 해당 가구를 구성한 가구원 개인 특성에 따라서 정책지원 욕구가 달라서, 따라서 지원 제도는 집단 특성별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5 정책적 함의와 제언

○ 정책적 함의

- ▶ 이상을 종합하여 비친족 가구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한다면 “남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족도 아닌 중간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느슨한 친밀성에 기반한 집합 가구”라고 할 수 있음.
 - 이들은 가구원 관계에 대하여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사이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남남과 가족의 중간 정도로 서로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등 친밀한 관계임. 그러나 주거비 절감 등 현실적 이유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였지만 1인 가구로의 독립에 대한 욕구, 직장 이전이나 결혼 등에 따라 쉽게 해체할 수 있어서 가구원 관계는 다소 느슨하고 법적으로 상호 의무도 전혀 없으며 권리 또한 없음.
 - 하지만 그동안 가족 구성의 유동성과 표준적 생애 경로 해체/이탈은 1인 가구 증가, 비혼화, 이혼 등의 경향에 주목해 왔음. 주거를 공유하며 상호돌봄과 정서적 의지를 하는 관계, 애정에 기반한 비혼 동거 가구 등 비친족 가구의 현황/실태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즉, 개인은 전 생애에서 다양한 방식의 가구(가족) 구성-부모와 살다가 1인 가구로 독립, 결혼했다가 이혼/또는 비혼, 친구와 동거, 비혼 동거, 다시 1인 가구 등-의 선택을 하고 있음. 이에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상호돌봄, 친밀성과 같은 관계 속성 또는 기능 중심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 현재 비친족 가구는 젊은 연령대에서, 혼인상태가 미혼일 때 주로 구성하는 유형의 가구일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최근 40대 이상 연령대에서 비친족 가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모든 연령대에서 비친족 가구로 공동생활을 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결혼 전에 일시적으로 비친족 가구를 구성하는 젊은 연령대와 달리 연령대가 높은 경우 공동생활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짐. 연령대가 높은 경우 주로 1인 가구로 생활하겠지만 일부는 가족이 아닌 새로운 친밀성 기반의 공동생활 가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이들은 공동생활을 장기간 지속하고자 하기 때문에 비친족 가구로서의 불안정성이 줄어들고 동거 가구원과의 관계도 가족과 동등하게 생각할 것으로 추정됨.
 - 이는 개인의 돌봄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관계성, 즉 전통적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공동 주거와 경제적 협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관계 형성 움직임의 단초로 볼 수도 있음. 따라서 가족과 동등하게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비친족 가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족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비친족 2인 가구 중 비중이 높은 남+여 2인 가구는 사실혼에 준하는 비혼 동거로 볼 수 있는 집단이 다수이지만 단순 동거 관계로 인식하는 집단도 존재함.

- 남+여 2인 가구 중 대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에 근접한 경우가 많았음. 구성 사유나 종료 예상 사유가 애정 관계 비중이 높고 공동생활 기간도 다른 2인 가구보다 길었으며, 서로를 배우자와 같은 사이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도 높았기 때문임. 비친족 가구 중 남+여 2인 가구는 사실혼에 근접한 가구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비친족 가구의 남+여 2인 가구 중 일부는 (사실혼에 근접한 비혼 동거가 아닌) 단순 애정 관계인 공동생활 가구도 있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비친족 가구로 구분되는 것은 가구 대표와 가구원 관계를 배우자(사실혼)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며, 실태조사에서도 배우자와 같은 사이로 응답하지 않고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사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가구의 구성원은 본인들의 동거생활을 가족에 준하는 범주로 포괄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비친족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 본 연구를 통해서 비친족 가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부양과 돌봄을 하고 있는 가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함.
 - 남+여 2인 가구는 배우자 관계와 거의 유사한 관계로 생활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음. 그러나 혼인·혈연에 의한 가족관계에 대해서만 법률상 권리가 보장되며 비친족 가구는 법적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비친족 가구에 대하여 법률상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 ▶ 하지만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은 공동생활을 하지만 상호 대등한 관계를 근간으로 하여 형성된 친밀성을 가지고 있어 또 가구원 수 및 성별 구성이나 가구원 간 친밀성의 정도에 따라서도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음.
 - 비친족 가구 관련 지원 정책은 비친족 가구의 “다양한 관계” 특성에 맞추어 각 집단의 필요를 더 세밀하게 확인한 후 별도의 법안 제정부터 기존 제도의 개선과 재편까지 다양하게 권리 보장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함.
- ▶ 따라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등 비친족 가구의 공동생활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시 비친족 가구는 혼인이나 혈연에 의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과 달라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등록할 때에만 공동생활 관련 권리 보장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는 비친족 가구의 집단 내 다양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가족과 동등한 권리 보장 수준인 제도부터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준까지 모두 포함하되, 당사자가 등록 신청 시 지원 목록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통계청(2010, 2015,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데이터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원자료 데이터
 통계청(2023).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200&bid=203&act=view&list_no=426429(검색일: 2024년 10월 4일)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